

# 언더우드의 초기 한국어 성서 번역에 대한 고찰

## -『누가복음』(1895)을 중심으로- 1)

민영진\* 전무용\*\* 조지윤\*\*\*

### 1. 머리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다.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선교사로서 사회활동가로서 저술가로서 왕성했던 그의 활동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성서 번역자로서 언더우드 목사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성서 번역자로서 언더우드 목사의 약전을 살피고, 그의 초기 번역 가운데서 『누가복음』(1895, 1898 개정)을 중심으로 번역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언더우드 목사의 약전도 성서 번역자로서의 언더우드의 특징을 살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살피고자 한다. 약전은 새로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 보고되어 있던 내용을 성서 번역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간추린 것이다.<sup>2)</sup>

### 2. 성서 번역자로서의 언더우드

#### 2.1. 출생과 성장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9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할아

\* 민영진, 대한성서공회 총무.

\*\* 전무용,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 조지윤,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1) 2004년 10월 26일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에서 ‘제4회 언더우드 기념 강좌’ 때에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실는다.

2) 아래의 책들을 책의 약자와 책의 쪽수를 밝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언.)= L. H. 언더우드, 『언더우드-한국에 온 첫 선교사』, 이만열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0/1999).

(안.)=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서울: 쿰란출판사, 2002).

(상.)= L. H. 언더우드, 『상투의 나라』, 신복룡, 최수근 역주 (서울: 집문당, 1999).

(한.)= 서정민 편역, 『韓國과 언더우드: (1905-1941)의 언더우드 家』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대.)=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버지 알렉산더 와우 박사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연합에 관심을 가진 분이었고, 해외 선교에도 깊은 관심을 지닌 분이였다.(언. 25) 그의 아버지 존 언더우드도 헌신적인 성품을 지닌 기독교인이었다.(언. 29) 언더우드는 열 살 때에 형과 함께 프랑스에 있는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열세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다.(언. 32)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뉴더햄에 살면서 1874년에 화란 개척교회인 그로브 교회에 등록한다. 저지 시에 있는 해스부르크 소년학교를 다니고, 그로브 교회의 메이번 목사 밑에서 자라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그리스어를 배운다.(언. 33)

호러스는 1877년부터 뉴욕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언. 35) 1881년 뉴욕대학을 졸업하면서, 뉴 브룬스위크에 있는 화란 개혁 신학교에 입학한다. 1884년에 신학교를 졸업했고, 뉴욕대학교로부터 문학석사 학위를 받는다. 그해 11월에는 뉴 부른스위크 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즈음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 1883년 7월호와 12월호 미국 교계 선교잡지에 영문으로 된 글을 실어, 자신이 한국어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으며 그 번역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것은 1884년에 미국성서공회가 출판한 이수정의 『新約聖書馬加傳』, 혹은 1885년 2월에 출간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인 듯하다. 그리고 이수정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서신을 읽은 미국인 실업가 맥윌리엄이 한국 선교 사업을 위하여 6천 달러를 헌금한다.<sup>3)</sup> 이것은 한국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1882년과 1883년에 걸치는 겨울에, 앨트먼 목사가 뉴 브룬스위크의 선교 지원자들에게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읽어주는 것을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자신은 인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한국에 갈 사람을 물색하였지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일년을 보낸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가 가슴 속에 울려오는 것을 듣는다. 개혁교회 선교부에 두 차례나 한국 선교사업을 신청하지만 선교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마침내 언더우드는 엘린우드 박사로부터 언더우드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언. 45)

3)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43-44. 편지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 2.2. 언더우드의 한국 입국과 한국어 공부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떠나 다음해 1885년 1월 25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약 2개월간 머물면서 선교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이 때 이수정을 비롯한 한국인 망명객들을 만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sup>4)</sup> 1885년 2월에 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가 간행되었고, 언더우드는 이 성서를 가지고 1885년 4월 5일에 한국(조선)에 입국한다.(언. 48)

언더우드는 일 년이 지나면서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몇 해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마가복음의 번역과<sup>5)</sup> 한영 및 영한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착수한다.(언. 54) 그는 많은 시간을 한국어를 배우는 데 할애하였으며,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그의 교사인 한국인 친구들을 접대하였고, 가능한 한 빨리 한국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였다. 1886년 헤론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언더우드는 1886년 초에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어 학생이었으며,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언. 56) 1886년에는 아펜젤러가 ‘마가복음을 완성한 사람’(이수정)과 함께 그 해 말이 되기 전에 번역을 완성해서 1887년 봄에 『마가의전복음서언히』를 출간한다.<sup>6)</sup> 이것은 이수정 역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의 일종의 개정판이다.(언. 57)

백낙준 박사는 언더우드의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7)</sup>

“언더우드는 언어 연구에도 한 개척자이다. 그는 서울에 당도하자마자 한국인 천주교인 송덕조<sup>8)</sup>를 자기의 어학선생으로 쓰게 되었다. 그이보다 더 좋은 선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 송씨는 불란서 선교사들을 6-7명 가르침으로써 외국인을 가르치는 데 많은 경험을 가졌으며, 동시에 한불사전을 완성하는 데 조력한 사람이었다. 언더우드는 사전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이 어학선생을 통하여 불란서 신부들과 그들의 한인 동역자들의 업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의 성실한 연구 결과로써 1890년 요코하마에서 『한국어회화입문서』<sup>9)</sup>를 펴내었다.

4) 새문안교회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 문헌자료집 제1집』(서울: 새문안교회, 1987), 16-17, 언더우드가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1885년 2월 16일자 편지.

5) 이미 출간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 이수정 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번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6) 서정민 편역, 『韓國과 언더우드』, 84.

7) 백낙준, 『韓國改新敎史』(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154.

8) 1885년 7월 6일자로 서울에서 보낸 언더우드의 편지인 *The Foreign Missionary*, 44:6 (November, 1885), 272; 『새문안교회 문헌자료집 제1집』, 21-24. 언더우드가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1885년 6월 6일자 편지에도 천주교인 어학선생의 고용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9)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3책(서울: 탑출판사, 1977; 원출판년 1890).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문법주석’이고, 2부는 ‘영어를 한어역’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험버트와 게일의 협조를 얻어 요꼬하마에서 역사적 저서인 『간이한국어사전』<sup>10)</sup>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한영부와 영한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언더우드의 사전 편찬 작업은 오랫동안 무척 많은 시간을 들인 작업이었다. (상. 122) 그것은 프랑스 사전<sup>11)</sup>처럼 단순히 조선어를 외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며, 『영한사전』 및 『한영사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적인 선교 업무에서 잠이 나는 모든 시간을 쏟아 넣고 있었던 그의 가장 소중한 설계였다.(상. 122)

사전과 문법책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운 언더우드가, 사전과 문법서를 저술하면서 말을 습득했다는 것은 그의 노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성서 번역자로서 언더우드가 얼마나 철저하게 한국어를 공부했는지를 보여준다.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약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길이나 셋길로 나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나 약수터 옆에 있는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일과로 삼아, 책을 읽어주거나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sup>12)</sup> 이러한 복음 전도의 현장 자체가 그에게는 모두 살아 있는 한국어 학습장이었다.

### 3. 언더우드의 성서 번역의 배경

#### 3.1. 성서위원회의 조직 및 번역 방법의 확정

언더우드는 처음부터 성서의 번역 출판 보급에 열심이어서, 아주 빠른 시기인 1887년 2월 7일에 상임성서위원회를 조직한다.(언. 57) 그해 4월 11일에 명칭을 한국상임성서위원회라 하였으며, 그 밑에 번역위원회와 개정위원회의 두 분과 위원회를 두었다.

10) H. G. 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11) 『한불즈던』을 말하는 것이다. 가톨릭 조선교구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편찬된 사전으로, 1880년 발행되었다. 서설·본문·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약 11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서설에서는 범례와 한글의 불문자화(佛文字化)에 관해 설명하였고, 본문에는 한글단어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그 옆에 발음과 한자 및 프랑스어로 뜻을 표기하였다.

12) Underwood, Horace G.,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3), 106-107.

1893년 5월 16일에 스크랜튼의 집에서 상임성서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위원들은 기존 로스역의 무용성(unusefulness)을 재확인하고 새 번역본을 펴낼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번역자회의 국내 선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어, 로스역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서 이루어진다.(대. 28, 30) 또 3년 전에 간행했던 아펜젤러의 『누가복음』(1890)을 재인쇄하기로 하고 영국성서공회에 이를 요청하기로 한다.<sup>13)</sup> 영국성서공회 편집위원회는 이 요청을 수락하였고, 이렇게 출간된 것이 『누가복음』(1893)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회의에서 번역의大本과 번역의 방법이 결정되었는 점이다. 옥스퍼드판 그리스어 성서(1881)<sup>14)</sup>를 1차大本으로 하고, 당시 널리 통용되던 ‘수용본문’(Textus Receptus)<sup>15)</sup>에 따라 일부수정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번역자들이 모두 영어권 출신이었으므로, 실제로 번역에 많이 이용된 것은 『영어개역』(Revised Version, 1881)<sup>16)</sup>과 『제임스왕역본』(King James Version, 1611)이었을 것이다.(대. 36, 37)

이 회의에서 언더우드는 5명으로 구성된 ‘전임번역자회’에 선출되고, 그 다음의 첫 모임인 1893년 10월 11일에 스크랜튼의 집에서 회장으로 선임된다.(대. 36) 그는 언제나 성서 번역을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생각하였다.(연. 58) 사람의 수중에 있는 성서가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성서 번역 방법은 중국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는 것을 재확인한 뒤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그 구체적 방법을 확정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1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27-29.

14) Edwin Palmer, *H KAINH DIAQHKH.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15) 상임성서위원회에서 수용본문(The Textus Receptus)의 어떤 편집본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다. 당시 널리 사용된 수용본문은 에라스무스에 이어 스테파누스(R. Stephanus)의 신약성경(1550)을 거쳐 1624년 네덜란드의 엘제비르(Elzevir) 형제에 의해 편찬, 완성된 본문이었다. ‘수용본문’이라는 명칭은 엘제비르 형제가 편찬한 둘째 판(1633년) 서문에 “독자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본문을 가지게 되었다”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라는 ‘과장된 광고’에서 생겨나게 되었다(Bruce M. Metzger, *A Textual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00).

16) 옥스퍼드에서 1881년에 출간된 Revised Version (RV) 혹은 English Revised Version (ERV)은 그리스어 비평편집본인 웨스트코트호르트(Westcott and Hort 1881)와 트레겔레스(Tregelles)에 기초하여 King James Version (KJV, 1611)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위원회에 의해 적용된 읽기는 팔머(Palmer, 1881)가 편집한 그리스어 편집본에 나타난다 (C. J. Ellicott, et al.,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ranslated out of the Greek: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A.D. 188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선교사들은 그리스어 성서와 영어개역판 성서를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고, 한국인 조사들은 한문대표자역본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되 일본어 성서도 참고하며, 원번역자의 번역을 다른 번역자들에게 보내어 검토하게 한 다음 다시 원번역자에게 보내어 수정역을 완성하게 하고, 전체 번역자회에서 한 절씩 읽어 가면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원고를 확정짓는다.”<sup>17)</sup>

### 3.2. 언더우드의 찬송가와 신 칭호

언더우드는 1890년에 부인의 산후 후유증으로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가 1892년 여름에 조선으로 돌아온다. 이 때 그는 찬송가의 번역작업을 한다. 이 작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용어 문제’였다.(상. 135) 당시의 중국어 성서는 “신(神)”(미국성서공회)과 “상제(上帝)”(영국성서공회)를 사용한 성서를 각각 따로 출판하고 있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天主)”를 사용하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기독교의 신의 이름으로는 “여호와”와 “아버지”만 사용하고, “하느님”이라는 이름과 “신”이라는 이름을 모두 빼버린다.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말을 써야만 그 찬송가를 누구나 기꺼이 사용하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선교사들 다수가 좋아하는 “하느님”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선교사들의 반대에 직면한다.(상. 133)

언더우드는 ‘천주’와 ‘상제’라는 두 칭호를 함께 사용한 때도 있었다.<sup>18)</sup> 그는 비기독교적 신을 표현하던 “하느님”이라는 칭호에 기독교 신의 속성을 지니게 할 수 없다고, 한국어 칭호 채택을 반대했었다. 이것이 영국성서공회와의 연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옛 고구려 왕국에서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유일신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그 말이 ‘크고 유일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이해하고, 이 본래의 의미에 담긴 속성을 가지고 이 말이 한국어 성서 번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이른다.(언. 133-137)

### 3.3. 언더우드의 『한영문법』 개관<sup>19)</sup>

언더우드의 『한영문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기술되어 있다. 1부는 “문법 정

17) W. D. Reynolds, “Bible Translation in Korea,” *KRp*, vol. III, 1896, 471-48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36-37에서 재인용.

18) *The Korean Repository*, for April, 1896, 177;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263에서 재인용.

19)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1890.

리” 부분으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 원어민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접근하려는 시도이고,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영어 대응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2부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부분으로, 영어의 입장에서 한국어로 접근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에 대한 한국어 대응어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기술되었다.

여기서는, 언더우드가 한국어 문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의 첫 번째 부분인 “문법 정리” 안의 12장을 요약해서 개관하고자 한다. 내용 요약의 체계는 언더우드 문법서의 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 (1)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입문적 설명

12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1. 한국어 학습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 2. 한국어 교사. 3. 한국인의 입장에서. 4.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어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어. 5. 이 책의 용도. 6. 한국어의 문장 언어. 7.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 8. 언문과 국한문 혼용체 문장. 9. 발음. 10. 외국인의 실수들. 11. 각 장의 순서 12. 존대법.

### (2) 한국어 철자와 그 소리

자음과 모음이 영문 발음 및 낱말의 뜻과 함께 병기되어 있다. 모음에서는 이중모음까지 설명하고 있고, 자음에서는 격음과 경음까지 따로 설명하고 있다.

알, äI, (egg): 안경, äN-kyung, (spectacles)

### (3) 명사

낱말뿐만 아니라 명사에 붙는 격조사도 문법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복수접미사들을 설명할 때에는 “어서 들 오시오.”와 같은 경우도 설명하고 있다. ‘안경, spectacles’를 설명할 때는 복수접미사 ‘-들’을 쓰지 않음으로써, 영어와는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김서방 댁, Mrs. Kim. 한서방 집, Mrs. Han” 등의 부름말을 잘 정리해낸 것은 한국어 부름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대명사와 대명사적 형용사(지시대명사)

모든 대명사들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주(Lord)”와 같은 말이나, “즈네, 공, 당신, 로형” 등과 같은 이인칭까지도 정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독특한 대명사 어법까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예시: 우리 집, *lit.* “our house”, means, “my house”, “home.”

3인칭으로 “더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은 당시까지도 영어의 ‘he’에 상응하는 대명사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He has come”를 “왔소.”로 정리하여,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주어가 생략되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 재귀대명사, 의문대명사, 지시대명사 등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5) 수사

수사에서는 “한, 두” 등의 수관형사와, “하나, 둘” 등의 양수사와, “일, 이, 삼” 등의 기본 수사와, “제일, 제이”와 같은 서수사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단위성 의존명사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두 돈, 서 돈, 석 량, 녁 량” 등의 예외적 용법들도 정리하고 있다. “일월, 이월, 삼월, 초하로, 초이틀” 등 달과 날을 나타내는 말과 “열 시, 열두 시” 등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도 여기서 정리하고 있다.

#### (6) 후치사(조사)

‘단순 후치사’라는 문법 범주로 “이, 가, 띄서, 의, 의게, 안테, 드려, 에, 을, 로/으로, 아, 에서, 브터, 은, 쓰지, 야” 등의 조사들을 잘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복합 후치사’라는 문법 범주로 “안희, 밧긔, 우희, 밧희, 꺄희/옆희, 위희, 압희, 써문에, 쓰답으로, 연고로, 아래에/아래, 이편에, 저편에, 디신에/디신으로, 속에, 꺄희, 후에, 전에, 꺄희, 가희” 등을 기술하였다. ‘준동사형 후치사’라는 이름으로, “위하야, 인하야, 넘어, 건너” 등을 기술하였다.

#### (7) 동사

동사에서도 “어서 들 가거라(*Go ‘(plur)’ quickly.*)”와 같이 복수 형태의 활용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청유형 활용, 자동사, 타동사, 사역형 활용, 피동형 활용, 기본형 활용(어간, ‘앗/엇/꺄/더/ 등의 선어말어미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등 동사의 다양한 활용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기술하였다.

종결서술형에서 낮춤형, 대등형, 높임형 들을 “한다, 하네, 하오, 하지오, 하옵지오, 하느이다, 하압느이다” 이렇게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현재일 때와 과거일 때를 구분하여 표로 만들어 기술하였다. 의문종결형은 “하느냐/하느니, 하느냐, 하냐, 하지, 하노, 하오, 하지오, 하느니잇가, 하옵느니잇가” 이렇게 각각 9개의 형태로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여 표로 만들어 기술하였다. 기본 종결형, 명령 종결형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것 하여 무엇 하겄소”와 같은 문장에서 “이것 하여”를 ‘동사적 분사’(Verbal Participl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는’의 ‘-는’이나 ‘온, 간’

등의 ‘-나’ 관형사형 활용을 ‘관계 분사’(Relative Participle)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고, -기’ 등을 동명사로 기술하였다. ‘호지’의 ‘-지’, ‘-라고/려고’의 ‘-라-/-려-’를 어간(bases)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정사(Supine)로 ‘호리’의 ‘-리-’를 기술하였다. 이 범주는 관계대명사가 없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일 잘 할 모군을 불너라. / Call coolies who will work well.”

한국어 예문과 영어 번역을 보면 관계대명사 없는 한국어와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영어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본 활용(Basal Conjugation)에서는 “호오, 호여/호야, 호게, 호” 등과 같이 현재직설법(present Indicative)과 과거(Past Verbal Part)와 미래(Future Verbal Part)와 과거분사(Past Relative Part)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 말의 ‘직설법’(Indicative Mood)으로는 “호오, 호엿소, 호겻소, 호엿겻소” 등의 단순시제와 “호더이다, 호엿더이다, 호겻더이다, 호엿겻더이다” 등의 복합시제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호자, 호세, 호압세다” 등을 청유형으로 기술하였다.

능동과 피동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동사의 연결형을 다양하게 기술하였다. ‘-면’과 ‘-거든’을 정밀하게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결형들을 일일이 영어와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고져 호오, -라고 호오’와 같은 활용형을 의도형 동사로 기술하였다.

‘안, 못’ 등의 부정 부사를 동사에 포함하여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기술하였다. ‘아니하오, 마오’ 등은 ‘-지 아니호오, -지 마오’ 등의 활용과 함께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로 기술하였다.

‘늘어가오, 먹어보오’ 등에 쓴 ‘-가오, -보오’ 등을 조동사로 기술하고 있다. ‘자고 십소, 못 살듯 십소, 하여 주오, 가게 되오’ 등을 이 범주에 넣어 기술하였다. ‘르 수 잇소, 만 호오, 법 잇소’ 또 ‘것이오, 더이오, 일이오’ ‘모양이오, 듯 호오, 싹 립이오, 줄 아오’ 등을 이 범주에 넣어서 설명한 것은 흥미롭다.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오’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오’를 같은 범주에 넣어서 설명한 것도 흥미롭다.

‘간접인용에서의 동사’를 따로 기술하고 있다. ‘집은 맛하 짓는 다고 호오. 가 겻다고 호엿 것 마는 아니 갓소. 이 붓치는 김셔방을 주라고 호오. 이 상 못 쓰겻 시니 다시 곳치래오.’ 직접 인용은 따로 기술하지 않고, 이러한 간접 인용만 기술한 것은, 실제 입말에서 거의 간접인용만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축약되고 생략된 형태’(Contracted and Elliptical forms)를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였다. ‘호는지 마는지, 호지 만지, 호지 말지, 호고 말고, 호고 말고, 호는동

마는동, 홀동 말동, 홀낙 말낙, 흐라 하다가, 너머질나’ 등. 대략 예문들을 살펴 보아도 입말에서 종종무진 사용되는 한국어 동사의 특성을 문법 범주로 설정하여 잘 기술하고 있다.

### (8) 형용사

‘눅소, 늦소’ 등은 동사로 구분하고, ‘눅흔, 느즌’ 등의 관형형은 형용사로 범주를 정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법적 판단은 별도로 생각해볼 일이겠다. ‘스렵소, 죽히오, 만히오,’ 등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어가오, 커지오’ 등의 동사를 같이 묶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분류로 보인다. ‘누르스렵히오, 누룩누룩히오’ 등의 어법도 설명하고 있다.

‘형용사의 비교급’에 대해서 ‘더 돛소, 이 칩 보다 그 칩이 돛소’ 등의 예문을 들어서 기술하고 있다.

### (9) 부사

‘지금, 아까, 또/다시, 미우, 오직/만/뿐, 얼마, 몇, 아마, 아조, 더, 덜, 웨, 아직, 안/못’ 등의 부사어의 의미와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그 밖에 형용사의 ‘-이, -히’ 활용형이 부사로 사용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미래형 동사적 분사’(future verbal participle)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도케, 칩게’ 등이 널리 부사적으로 쓰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려(Downward), 올려’, ‘너머(Too much), 건너(Beyond)’ 등도 영어로 보자면 부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안흐로, 쎄에, 절로/스스로, 임의로, 아춤에, 후에, 낮제(At noon), 전에, 별노’ 등은 명사가 후치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더 잘, 더 도케’ 등 부사가 앞뒤로 사용되는 예도 기술하였다. ‘어디, 어디로, 어디서, 여기, 여기로, 여기서’ 등 부사에 후치사(조사)가 붙는 예도 기술하였다.

### (10) 접속사

‘와/과, 밋, 고/하고, 며, 나/이나, 지/가, 마는’ 등에 대해서 의미와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비록, 나, 더, 되, 거니와, 툇, 도’ 등을 영어의 ‘though, although’와 상응하는 의미 범주의 말로, ‘만일, 면, 거든’ 등을 영어의 ‘if’와 상응하는 의미 범주의 말로, ‘닛가(-니까), 매, 즉’ 등을 영어의 ‘inasmuch as, since, seeing that’ 등과 상응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라도, 그런고로, 그러므로, 그러면’ 등의 문장부사를 여기서 기술하고 있다.

## (11) 높임법

‘호오 - 호시오, 벗소 - 버스시오’ 등을 ‘-시-’의 용법 설명과 함께 평교체 (Ordinary)와 경어체(Honorific)로 기술하였고, ‘먹소 - 잡수오, 죽소 - 도라가시오, 잇소 - 계시오, 아오 - 통촉호시오, 말호오 - 말씀호시오, 오오 - 림호시오’ 등은 동사 자체가 달라지는 형태의 높임법으로 기술하였고, ‘주오- 드리오, 못소 - 품하오, 널으오 - 엇즈오’ 등은 동작의 대상에 따라서 다른 동사를 쓰는 예를 기술하였다. ‘아버지 - 어루신네, 어머니 - 자당, 형 - 백씨, 집 - 댁’ 등 경우에 따라서 명사가 달리 사용되는 경우도 기술하였다.

## (12) 문장의 구조

문장 안에서 각 낱말들의 의미뿐만 아니라 용법과 위치, 전체 문장이 필요로 하는 몇몇 문장 종결어들을 언급하고 있다. 문장 안에서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 이끄는 말과 뒤따르는 말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후치사(조사나 어미)가 낱말의 뒤에 붙어서 낱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도 기술하고 있다. 주어가 서술어를 이끌고, 강조하는 말이 문장 앞에 위치하며, 연결어미로 문장이 이어진다는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세세한 문법적인 설명 외에도 “미국은 업는 것 업소.-In America they have everything.” 등과 같이, 한국어에는 이중부정의 문장이 영어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술하여, 한국어의 특질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후치사, 접속사, 동사의 상태 등이 다른 언어와 다르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 문장을 대조할 때에 한국어 문장의 주어를 처리한 방법을 보면, 한국어가 꼭 필요하지 않은 주어를 생략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언더우드의 한국어 이해는 초보적인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언더우드의 한국어 문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한국어 회화를 배우는 학생들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고 기록되었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아주 초기의 한국어 문법책으로서, 대단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한국어 문법을 분석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로스 목사가 저술한 한국어 문법책<sup>20)</sup>이 있지만, 이 책은 10쪽 분량의 아주 초보적인 문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장 대조 교본이며, 나머지는 어휘집이다. 언더우드 목사의 문법서는 211쪽이나 된다. 방대한 분량으로 볼 때에도 그렇지만, 문법 기술의 정교함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언더우

20) John Ross,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Shanghai & Hongkong: KELLY & WALSH, 1882).

드 목사의 한국어 이해는 한국어 성서를 번역하기에 나름대로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언더우드가 밝히고 있는 성서 번역의 원칙과 방법

구역 『성경전서』 번역을 마치고, 언더우드가 1911년 10월 『코리언 미션 필드』(*The Korean Mission Field*) 제 7권 10호에 기고한 성서 번역을 회고한 글을 읽으면 그의 번역팀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번역에 임했는지와, 성서 번역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sup>21)</sup> 그의 회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원문의 관용구를 조선어의 관용구로 바꾸었다.

(2) 1900년에 신약 시험역본을 냈으며, 1906년에 공인역본 신약전서를 완성하였다.

(3) 아펜젤러, 게일, 레이놀즈, 트롤로프, 존스, 언더우드가 성서위원회를 구성한다. 아펜젤러 사망 이후에는 주로 게일, 레이놀즈, 언더우드가 주로 활동했다.

(4) 꽤 여러 권의 구약 각 권의 번역본이 준비된 후에 몇몇 숙련된 조선인들이 성서위원회의 정규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번역자들과 함께 일해 왔다.

(5) 유능한 번역 조력자를 구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 뛰어난 학자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번역자가 일반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식층의 문체를 습득하여 성서 번역이 대상으로 삼은 대다수 민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었다.

(6) 고급 유식층 문체와 일반 대중 문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였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이면서도 동시에 식자층의 마음에 들도록 정숙하고도 깔끔한 문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눅 23:5 “필나도 | 무려 굴으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디답흐야 굴으샤디 공이 말흐엿도다” 『성경전서』)

(7) 백스터판 다국어 성서, 8개국어 대조판과 다양한 중국어 일본어 번역판을 모두 참고했고, 원문과 영어 개역판은 처음 번역한 성서에 큰 도움이 되었다.

(8) 권위 있는 주석서를 계속 사용했다.

(9) 처음에 어려웠던 점은 번역자들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고서도 그것을 조선인 조력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21) L. H. 언더우드, 『언더우드-한국에 온 첫 선교사』, 60-62; 서정민 편역, 『韓國과 언더우드』, 83-87.

그 뜻을 대충 이해했을 때조차도 조력자들은 그것을 대다수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조선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눅 1:56에서는 “할례(유대국 입교하는례)”와 같이 표현하여 “할례”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10) 한국인들이 딱딱하고 고전적인 말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순한 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때때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11) 레이놀즈 박사가 구약 번역의 수고를 도맡아서 1911년에 구약 전체 번역을 마쳤다.

(12)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말씀의 개념을 완전히 한국말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찾아내어 번역하는 일이었다. (“하느님”, “영”, “령혼”, “혼”, “몸” 등.)

(13)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이 회고 안에서 번역자들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 번역자는 그가 사용하려고 하는 언어와 원래의 성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2) 원래의 뜻은 되도록 이 나라 말에서 사용되는 매개개념으로 완벽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러한 이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원래의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조선인 학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4) 장래에는 이러한 학자를 키워서 성서 번역을 맡겨야 한다.

(5) 문자적인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6) 완전히 글자 그대로의 번역은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구적인 번역이 될 것이다.

(7) 이를 위하여 번역자는 원문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에서 그에 상응하는 관용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찾기 위해 힘써야 한다.

(8)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장 비슷한 상당어구라 할지라도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9) 때때로 언어는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의미의 미세한 부분이 다를 뿐인 하나 이상의 관용구를 가진다. 이럴 때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비교해 보는 것

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더우드의 글을 볼 때에, 언더우드가 밝힌 가장 이상적인 번역의 모습은, 한국인 학자들이 원문의 의미를 잘 익혀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문체로, 지식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적인 깔끔한 문체로, 원어의 의미에 상응하는 한국어어 관용구를 찾아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5. 언더우드의 초기 번역 성서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성서가 먼저 번역되어 들어왔다는 것이다. 로스 목사와 서상륜 등이 중국에서 번역한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1887)의 날권 본들이 1882년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들어온 것이 그것이다. 또 한 가지는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그것이다.

두 선교사는 이 마가복음을 국내에서 다시 개정해서 『마가의전후복음서언해』<sup>22)</sup>로 출간을 한다.

1889년 영국성서공회는 한국의 성서위원회에 로스역 성서 중 누가복음을 수정하여 낼 것을 요청해 왔고, 아펜젤러는 먼저 번역되어 있었던 『예수성교전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수정해서 1890년에 『누가복음전』으로 출간을 한다. 이 성서는 서울에 있던 미이미교회인쇄소(Trilingual Press)에서 인쇄되었다. 어느 정도의 수정인지 별도로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같은 해 역시 로스역 로마서를 아펜젤러가 수정한 『보라달 로마인서』가 영국성서공회 발행으로 미이미교회인쇄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두 책이 완성된 후 성서위원회는 로스역 수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번역으로 한글 성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1892년에 최초의 본격적인 국내역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전』이 아펜젤러에 의해서 번역되어 출간이 된다.

1894년 여름 청일전쟁이 시작된다. 동학을 일으킨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빌미로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시기에 선교사들은 방 안에만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언더우드는 1894년 여름 한강변에 여름 별장인 ‘프레드릭 언더우드 피난처’

22) 『마가의전후복음서언해』, 언더우드 아펜젤러 역 (발행지 미상: 스코틀랜드성서공회, 1887).

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성서 번역에 몰두한다(언. 146-148). 1895년에 출간된 누가복음의 번역이 이 시기에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1893년에서 1896년의 번역은 개인역 또는 임시역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처음 3년간 모인 번역자회 독회에서는, 20회는 1895년에 발행된 『마태복음』을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11회는 서신 독회였다.<sup>23)</sup>

1895년에 언더우드가 『누가복음』을 새로 번역하여 출간한다.<sup>24)</sup> 엄밀하게는 이 번역이 최초의 국내역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검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898년에 언더우드가 계속해서 번역한 책은 『누가복음』 『필립보인서』 『골로시인서』 『딤토데전서』 『딤토데후서』 『빌네몬』 『요한일이삼유다서』 등이다. 1898년 언더우드가 선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신약성서의 번역사업뿐만 아니라, 합의에 따라서 혼자서 시편의 3분의 2 가량을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언. 195).

다음 본문에서는 1895년의 『누가복음』(언더우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로스의 『예수성교전서』 안에 있는 “누가복음”과 아펜젤러역 『누가복음전』과 1898년의 언더우드의 『누가복음』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 6. 언더우드가 번역한 『누가복음』

### 6.1. 기존 한국어 번역들과 언더우드의 새번역

언더우드가 1895년에 번역한 『누가복음』은 역자, 발행자, 인쇄인을 알리는 간기(刊記)가 없다. 언더우드 역 『누가복음』으로 알려진 책은 표제지를 보면 세로가 세 난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난에 “쥬강싱일천팔빅구십오년”이라는 발행연도가 서기로 표기되어 있고, 가운데 난에는 『누가복음』이라는 책 이름이 굵고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왼쪽 난에 “대조선기국오빅스년을미”라고 하는 우리 역사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1.5cm x 15cm이며, 전체 28장 56쪽이다.

23) W. 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102를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41에서 재인용.

2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45. 언더우드 번역 단편 성서 목록은 『대한성서공회사』를 참조하였다. 당시의 단편성서에는 번역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성서공회사』에는 이 자료의 역자를 밝히고 있는 원자료들이 밝혀져 있다: *PC AR for 1895*, 121; *PC AR for 1899*, 171-172; *MEC AR for 1895*, 247; *OJMEC*, 1899, 19; 「그리스도신문」, 5-18, 1890, 5. 1.; 이만열,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73.

이것은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세 성서공회 공동출판으로 나오고, 6,500부가 발행되었다.

언더우드가 1895년에 번역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초기 한국어 역본 여덟 개의 본문을 비교하여, 언더우드의 번역이 초기 한국어 번역에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1882년 로스 번역 팀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누가복음 1장1-8절을 절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디기열어사람이부슬들어우리가운데일운일을괴술히되처음으로부터친이보고도를던하닌자우리를준비갓디히엿기로니또뜻히여모든일을자세이근원을쫓차치레토써귀인데오비노의존전에안달히문귀인불니보인비의실정을알게히미라유디왕헤롯씨를당히여아버야자손의반널에제사일음은사카라요그체는이론의후예일음은이니사빅이니두사람이하느님의 압페셔올운자라주의 계명과네를쫓차히히여흠이업스되다못아들이업스문이니사빅이잉티못히고두사람의나이또한늘그미라마즘사카라그반널을의지히여제사의직분을하느님의 압페히고 (1882)

고유명사 표시로 밑줄이 그어 있고, 띄어쓰기 없이 본문이 편집되어 있으며, ‘하느님’과 ‘쥬’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여 구별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띄어쓰기는 ‘대두법’이라 하여, 이 낱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통적인 대두법은 높으려는 말 앞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말의 다음을 띄어서 쓴 것이 흥미롭다.

다음의 1883년 로스 번역 팀의 『예수성교누가복음데자형적』의 『누가복음』은 1882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개정판이다.

디기열어사람이부슬들어우리가운데일운바일을쓰기난처음으로부터보고도를던하난자가우리를준갓치니가또한처음으로모든일을자세이상고히여치레로써뜻히고귀한티오비노의합히의안달히문녕으로뵈온바의긋건하물알게히미라유디왕헤롯의씨를당히여아버야의반널에제사일흠은사카라라요그체는아론의후예일흠은이리사벳이니두사람이 하나님의압페셔올운자라 주의경계와레의를쫓차히히기를흠이업사되다못아달이업사문이니사벳이잉티치못히고두사람의나이또한늘그미라마즘사카라그반널을의지히여제사의직분을 하나님의압페히ㅎ다니 (1883)

한자어 “괴술히되”를 순우리말 “쓰기난”으로 수정하였고, “친이”가 삭제되었고, 일부 철자와 음역이 달라졌다.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표기가 바뀐 것이 눈에 띈다. 또한 “하나님”과 “쥬” 앞에 띄어쓰기를 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두법을 적용하였다.

다음의 1887년 『예수성교전서』의 누가복음도 “로스 번역 팀 자체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883년 『예수성교누가복음대자형적』의 조사만을 일부 바꾼 수정판이다. 첫 절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매 절마다 절 표기를 하였다. ‘대두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보인다.

디기열어사롬이부슬들어우리가온디일운바일을쓰기<sup>二</sup>는<sup>三</sup>처음으로부터친이보고도  
 툄전<sup>四</sup>호는자가우리를줍갓치<sup>五</sup>니가또한처음으로모단일을자세이상고<sup>六</sup>호여츠레로써  
 뜻<sup>七</sup>호고귀한티오비노의합<sup>八</sup>호의즐겨양달<sup>九</sup>호문<sup>十</sup>녕의비온바의긋게<sup>十一</sup>호물알게<sup>十二</sup>호미라<sup>十三</sup>  
 유디왕<sup>十四</sup>헤롯의째를당<sup>十五</sup>호여아비아의반렬에제사일<sup>十六</sup>호은사카랴요그처는아론의후에  
 일<sup>十七</sup>호은이리사벳이니<sup>十八</sup>두사롬이하<sup>十九</sup>님의압페셔올은자라주의경계와레의톨다<sup>二十</sup>쫓차<sup>二十一</sup>형  
 호기<sup>二十二</sup>를글<sup>二十三</sup>웃<sup>二十四</sup>함이업스되<sup>二十五</sup>다<sup>二十六</sup>못<sup>二十七</sup>아<sup>二十八</sup>달이업스문<sup>二十九</sup>이리사벳이<sup>三十</sup>잉<sup>三十一</sup>티<sup>三十二</sup>치<sup>三十三</sup>못<sup>三十四</sup>호고<sup>三十五</sup>두<sup>三十六</sup>사<sup>三十七</sup>롬의<sup>三十八</sup>나이  
 또<sup>三十九</sup>늘<sup>四十</sup>그<sup>四十一</sup>미라<sup>四十二</sup>다<sup>四十三</sup>참<sup>四十四</sup>사<sup>四十五</sup>카<sup>四十六</sup>라<sup>四十七</sup>그<sup>四十八</sup>반<sup>四十九</sup>렬<sup>五十</sup>을<sup>五十一</sup>의<sup>五十二</sup>지<sup>五十三</sup>호<sup>五十四</sup>여<sup>五十五</sup>제<sup>五十六</sup>사의<sup>五十七</sup>직<sup>五十八</sup>분<sup>五十九</sup>을<sup>六十</sup>하<sup>六十一</sup>나<sup>六十二</sup>님의<sup>六十三</sup>압<sup>六十四</sup>페<sup>六十五</sup>형<sup>六十六</sup>호<sup>六十七</sup>더<sup>六十八</sup>니  
 (1887)

1890년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은 로스역을 수정한 것으로, 새로운 번역은 아니다. 철자법에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문장 구성에 있어서나 번역에 있어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다. 1889년 영국성서공회에서는 한국의 성서위원회에 로스역 성서 중 누가복음을 수정하여 낼 것을 요청해 왔고, 이에 아펜젤러가 로스역 성서 중 누가복음을 수정하여 1890년 『누가복음전』이란 이름으로 출간하였던 것이다. 로스역 성서와 내용에 있어서 거의 같으나 이 『누가복음전』에서는 대두법이 생략되고 있다. 이 역본에서부터 문단 나누기를 나타내는 각설표 ○가 등장한다.

대개여러사롬이부슬들어우리가온디일운바일을쓰기<sup>二</sup>는<sup>三</sup>처음으로부터친이보고도  
 툄전<sup>四</sup>호는자가우리를줍갓치<sup>五</sup>내가또한처음으로모단일을즈세이상고<sup>六</sup>호야츠레로써  
 뜻<sup>七</sup>호고귀한티오비노의합<sup>八</sup>호의즐겨양달<sup>九</sup>호문<sup>十</sup>녕의비혼바의긋게<sup>十一</sup>호물알게<sup>十二</sup>호미라○  
 유디왕<sup>十三</sup>헤롯의째를당<sup>十四</sup>호야아비아의반렬에제사일<sup>十五</sup>호은사카랴요그처는아론의후에  
 일<sup>十六</sup>호은이리사벳이니<sup>十七</sup>두사롬이하<sup>十八</sup>님의압회셔올혼자<sup>十九</sup>라<sup>二十</sup>주의경계와레의톨다<sup>二十一</sup>쫓  
 차<sup>二十二</sup>형<sup>二十三</sup>호기<sup>二十四</sup>를<sup>二十五</sup>그<sup>二十六</sup>릇<sup>二十七</sup>호<sup>二十八</sup>이<sup>二十九</sup>업<sup>三十</sup>스<sup>三十一</sup>되<sup>三十二</sup>다<sup>三十三</sup>못<sup>三十四</sup>아<sup>三十五</sup>돌이<sup>三十六</sup>업<sup>三十七</sup>습<sup>三十八</sup>은<sup>三十九</sup>이<sup>四十</sup>리<sup>四十一</sup>사<sup>四十二</sup>벳이<sup>四十三</sup>잉<sup>四十四</sup>티<sup>四十五</sup>치<sup>四十六</sup>못<sup>四十七</sup>호고<sup>四十八</sup>두<sup>四十九</sup>사<sup>五十</sup>롬의  
 나<sup>五十一</sup>히<sup>五十二</sup>또<sup>五十三</sup>늘<sup>五十四</sup>음<sup>五十五</sup>이라<sup>五十六</sup>다<sup>五十七</sup>참<sup>五十八</sup>사<sup>五十九</sup>카<sup>六十</sup>라<sup>六十一</sup>그<sup>六十二</sup>반<sup>六十三</sup>렬<sup>六十四</sup>을<sup>六十五</sup>의<sup>六十六</sup>지<sup>六十七</sup>호<sup>六十八</sup>야<sup>六十九</sup>제<sup>七十</sup>스의<sup>七十一</sup>직<sup>七十二</sup>분<sup>七十三</sup>을<sup>七十四</sup>하<sup>七十五</sup>나<sup>七十六</sup>님의<sup>七十七</sup>압<sup>七十八</sup>회<sup>七十九</sup>형<sup>八十</sup>호<sup>八十一</sup>더<sup>八十二</sup>니  
 (1890)

1893년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은 1890년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의 재판으로, 다음의 본문에 한해서는 번역뿐 아니라, 철자나 음역에 있어서 1893년판이나 1890년의 구별이 없다. 다만, “하느님” 앞을 띄어서 대두법을 적용한 것이 다르다.

대개 여러 사롬이 붓술 들어 우리가 온디 일운 바일을 쓰기는<sup>二</sup> 처음으로 브터 친히 보고도  
 툄 전호는 자가 우리를 줍긔<sup>三</sup> 내가 또 호는 처음으로 모든 일을 즈세히 상고 호야 츠레로 써  
 썻 호고 귀한 티오비노의 합하의 즐겨 앙달 흠은<sup>四</sup> 령의 비훈바의 국계 흠을 알게 흠이라 ○  
<sup>五</sup> 유대왕 헤롯의 때를 당호야 아비아의 반렬에 제스 일흠은 사카랴요 그 처는 아론의 후에  
 일흠은 이리사벳이니<sup>六</sup> 두 사롬이 하느님의 압회셔 올혼자 | 라주의 경계와 레의 룰다  
 좃차 항호기를 그릇 흠이 업스디<sup>七</sup> 다 못아 돌이 업스름은 이리사벳이 잉티치 못호고 두 사롬  
 의 나히 또 늙음이라<sup>八</sup> 못춤 사카랴 그 반렬을 의지 호야 제스의 직분을 하느님의 압회 항  
 호더니 (1893)

1895년 언더우드의 『누가복음』에서는 번역이 이전의 로스역과 그것의 수정본인 “아펜젤러역”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문장 구성에 있어서나 철자법과 음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여기에서 시도한 새로운 음역은 1898년 언더우드의 『누가복음』과 1900년 『신약전서』의 누가복음뿐 아니라 그 이후의 한국어 역본들에 영향을 준다.

<sup>一</sup> 데오빌노대인이여 대개 만흔 사롬이 근본도 툄 전호는 이가<sup>二</sup> 처음브터 친히 보고우리의  
 계준대로 우리가 갑히 밋을 일을 글에 기록호는 거시니<sup>三</sup> 나도 즈세히 상고 호고 츠레로 써  
 셔<sup>四</sup> 네게 보내는 거스너로 호여 곱비훈 거시 확실호는 거술 알게 흠이로라 ○<sup>五</sup> 유대왕 헤롯  
 시절에 아비아 반렬의 제스 호나히 잇스니 일흠이 사가리아 | 라 그 안히는 아론의 즈손이  
 니 엘니사벳이라<sup>六</sup> 두 사롬이 하느님 압회 의인이라 주의 경계와 레의 룰다 좃차 항호야 흠이  
 업고<sup>七</sup> 엘니사벳이 슈티를 못호야 무즈호고 두 사롬의 나히 또 만흔 지라<sup>八</sup> 못춤 사가리아  
 가 그 번의 반렬대로 제스의 직분을 하느님 압회 항홀시 (1895)

1898년 언더우드의 개정 『누가복음』은 그 이전의 한국어 역본들과는 달리 띄어쓰기를 시도하였다.

一대개 여러히 손을 들어 우리 중에 족히 증거호는 일노 글을 베프러 지은 거시  
 二 처음브터 친히 보고 도를 섬기는 이들이 우리의 계준대로 기록호는 거시니  
 三 나도 즈세히 근원을 미루어 슬핍으로 츠레로 써셔 데오빌노 각하에 보내는 거  
 시 맛당호는 줄노 아니 四 이는 너로 호여 곱비훈 바의 확실 흠을 알게 흠이니라  
 ○ 五 유대왕 헤롯의 시절에 아비아 반렬의 제스 호나히 잇스니 일흠이 사가리  
 아 | 라 그 안히는 아론의 즈손이니 일흠은 엘니사벳이라 六 이 두 사롬이 하  
 느님 압회 의인이라 주의 계명과 레의 룰다 좃차 항호야 흠이 업느니라 七 또 무즈  
 흠은 엘니사벳이 슈티를 못 흠이오 두 사롬의 나히 또 호는 만호니라 ○ 八 못춤  
 사가리아가 그 반렬의 츠레대로 제스의 직분을 하느님 압회 항홀시 (1898)

언더우드는 그 자신이 3년 전에 번역한 『누가복음』과는 확연하게 다른 수정을

가하였다. 어순에 있어서 자유로웠던 번역을, 어순을 원문에 가깝도록 조정한다. 이 누가복음은 2년 후인 1900년 『신약전서』의 “누가복음”에 거의 그대로 포함된다.

다음 인용된 1900년 『신약전서』의 누가복음 본문은 1898년 언더우드의 『누가복음』의 표현을 일부 바꾸고(시절에→때에, 만호니라→만흠이니라), 음역을 소폭 수정하고(사가르아→스가르아), 오자를 수정하고(하님느→하느님), 띄어쓰기를 소폭 수정하였다(못 흠이오→못흠이오).

一대개 여러히 손을 들어 우리 중에 족히 증거한 일노 글을 베프러 지은 거시  
 二처음부터 친히 보고 도를 섬기는 이들이 우리의게 준대로 괴록한 거시니  
 三나도 즈세히 근원을 미루어 슬핌으로 츠레로 써서 데오빌노 각하에 보내는 거  
 시 맛당한 줄노 아니 四이는 너로 호여곰 비훈 바의 확실 흠을 알게 흠이니라  
 ○ 五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아 반렬의 제스 호나히 잇스니 일흠이 스가르아  
 |라 그 안히는 아론의 즈손이니 일흠은 엘니사벳이라 六이 두 사람이 하느님  
 압희 의인이라 주의 계명과 레의를 조차 헝헝야 흠이 업는지라 七또 무즈흠은  
엘니사벳이 슈티를 못흠이오 두 사람의 나히 또흔 만흠이니라○ 八므춤 사가  
르아가 그 반렬의 츠레대로 제스의 직분을 하느님 압희 헝홀시 (1900)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1895년 언더우드의 『누가복음』은 그 전의 우리말 역본들과는 다른 새로운 번역본이었다. 로스 번역 팀이 번역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나 그 개정판인 『예수성교누가복음테자형적』(1883),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의 누가복음(1887), 그리고 로스 역의 수정본인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1890)이나, 아펜젤러의 개정 『누가복음전』(1893)과는 번역이 전혀 다르다. 언더우드의 1895년 『누가복음』은 3년 후 1898년에 언더우드 자신이 다시 개정하여 출간하였으며, 1898년의 『누가복음』은 1900년의 『신약전서』에 포함된 “누가복음”과 거의 같다.

언더우드의 1895년, 1898년의 『누가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 이전의 역본들과의 관계, 그 이후의 역본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언더우드의 1895년 『누가복음』을 1887년 『예수성교전서』의 누가복음과 1890년의 아펜젤러 『누가복음전』과 비교하여 보고, 그 후에 1898년 언더우드 자신이 개정한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것이다.

## 6.2. 로스(1887)와 아펜젤러(1890)와 언더우드(1895)의 『누가복음』 번역 비교

누가복음 1장 1절  
 로스역 디기열어사롬이부슬들어우리가온디일운바일을쓰기논  
 아펜젤러역 대개여러사롬이붓슬들어우리가온디일운바일을쓰기논  
 언더우드역 디오빌노대인이여대개만흔사롬이근본도를전하논이거

누가복음 1장 2절  
 로스역 처음으로붓터친이보고도를전하논자가우리를줍앗치  
 아펜젤러역 처음으로브터친이보고도를전하논자가우리를줍앗치  
 언더우드역 처음브터친히보고우리의게준대로우리가집히밋을일을글에기록  
 흔거시니

누가복음 1장 3절  
 로스역 니가또한처음으로모단일을자세이상고하여차례로써뜻하고귀한  
 디오비노의합하의즐거양달함은  
 아펜젤러역 내가또한처음으로모단일을자세이상고하야차례로써뜻하고귀한  
 디오비노의합하의즐거양달함은  
 언더우드역 나도자세이상고하고차례로써서

누가복음 1장 4절  
 로스역 네의보온바의곳건하물알게하미라○  
 아펜젤러역 네의비흔바의곳게함을알게함이라○  
 언더우드역 네게보내는거손너로하여곰비흔거시확실히거술알게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 5절  
 로스역 유디왕헤롯의씨를당하야아비아의반렬에게사일홈은사카랴요그  
 처는아론의후예일홈은이리사벳이니  
 아펜젤러역 유디왕헤롯의씨를당하야아비아의반렬에게스일홈은사카랴요그  
 처는아론의후예일홈은이리사벳이니  
 언더우드역 유다왕헤롯시절에아비아반렬의제스하나히잇스니일홈이사가리  
 아 | 라그안히는아론의즈손이니엘니사벳이라

누가복음 1장 6절  
 로스역 두사람이하나님의압페서울은자라주의갱계와례의를다좃차행하  
 기를글웃함이업스되

아펜젤러역	⁶두사롬이하느님의압회셔을혼자   라쥬의경계와례의롤다좃차헝 헝기롤그릇홈이업스디
언더우드역	⁶두사롬이하느님압혜의인이라쥬의경계와례의롤조차헝하야름이 업고
누가복음	1장 7절
로스역	⁷다못아달이업스문이사벳이잉티치못헝고두사롬의나이또늘그 미라
아펜젤러역	⁷다못아들이업습은이사벳이잉티치못헝고두사롬의나히또늘음 이라
언더우드역	⁷엘니사벳이슈티롤못하야무즈헝고두사롬의나히또만흔지라
누가복음	1장 8절
로스역	⁸마즘사카라그반렬을의지하여제사의직분을하나님의압페헝하더 니
아펜젤러역	⁸못춤사카라그반렬을의지하야제스의직분을하느님의압회헝하더 니
언더우드역	⁸못춤사가리아가그번의반렬대로제스의직분을하느님압혜헝홀시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90년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은 1887년 『예수 성교전서』의 누가복음과 번역어 선택이나 어순에 있어서 달라진 곳이 거의 없다. 위 대조에서 보듯이, 철자법의 차이(디기→대개, 처음으로부터→처음으로 부터, 업스문→업습은, 하나님→하느님), 두음법칙의 차이(녕→영) 등의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어순도 같고, 음역도 같아서, 거의 차이가 없다.

1895년의 언더우드 『누가복음』은 그 전의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위의 대조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어순과 문장 구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더우드의 번역이 새로운 번역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1890년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과 1895년의 언더우드 『누가복음』의 차이는 위의 예문만을 중심으로 하여 보더라도 대략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 6.2.1. 철자법의 차이 “친이”와 “친히”(2절)

“압희”와 “압혜”(8절)  
“반렬에제스”와 “반렬의제스”(8절)

6.2.2. 음역의 차이

“티오비노”(3절)와 “더오빌노”(1절)  
“유디”와 “유다”(5절)  
“아비아”와 “아비아”(5절)  
“샤카랴”와 “사가리아”(8절)  
“이리사벳”과 “엘니사벳”(7절)

6.2.3. 번역어 선택의 차이

“여러”와 “만흔”(1절)  
“합하”(3절)와 “대인”(1절)  
“비흔바의”와 “비흔거시”(4절)  
“긋게 흠을”과 “확실흔거술”(4절)  
“째틀”과 “시절에”(5절)  
“그쳐논”과 “그안히논”(5절)  
“후예”와 “즈손이니”(5절)  
“올흔자 | 라”와 “의인이라”(6절)  
“잉티치”와 “슈티를”(7절)  
“나히늑음이라”와 “나히만흔지라”(7절)  
“아들이업습은”과 “무즈흐고”(7절)

6.2.4. 어순의 차이

“우리가온디일운바일을”(1절)과 “우리가깊히밋을일을”(2절)  
“쓰기논”(1절)과 “긋록흔거시니”(2절)  
“도틀전흔논자가”(2절)와 “도틀전흔논이가”(1절)  
“우리룰줍긋치”(2절 하반절)와 “우리의게준대로”(2절 상반절)  
“티오비노의합하의”(3절)와 “더오빌노대인이여”(1절)  
“아들이업습은”(7절 상반절)과 “무즈흐고”(7절 하반절)

6.2.5. 번역 내용의 차이

“우리가온디일운바일을”(1절)과 “우리가깊히밋을일을”(2절)  
“쓰기논”(1절)과 “글에긋록흔거시니”(2절)  
“우리룰줍긋치”(2절 하반절)와 “우리의게준대로”(2절 상반절)

“티오비노의합하의즐거양달흠은”(3절)과 “네게보내는거슨”(4절)  
 “령의”와 “너로하여금”(4절)

6.2.6. 길게 번역된 예(밑줄 부분)

“도를”(2절)과 “근분도를”(1절)  
 “제스”와 “제스 흐나히잇스니”(5절)  
 “그반렬을”과 “그번의반렬대로”(8절)

6.2.7. 짧게 번역된 예(밑줄 부분)

“여러사름이붓술들어”과 “만흔사름이”(1절)  
 “내가또흐처음으로모든일을”과 “나도”(3절)  
 “씨뜻흐고”와 “씨셔”(3절)  
 “귀흔티오비노의합하의”(3절)와 “더오빌노대인이여”(1절)  
 “째를당흐야”와 “시절에”(5절)  
 “일흠은이리사벳이니”와 “엘리사벳이라”(5절)  
 “다좃차”와 “조차”(6절)  
 “반렬을의지흐야”와 “반렬대로”(8절)

위에서 보듯이, 언더우드의 1895년의 『누가복음』 번역은 그전의 아펜젤러의 번역과는 다른 새로운 번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철자법과 음역이 달라진 것 외에 대응어가 다양하게 차이가 나며 어순도 적지 않은 곳에서 차이가 난다. 원문에 3절에 있는 첫번째 수신자의 이름을 1절에서 “더오빌노대인이여”라는 부름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말 서신 형식을 따른 번역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번역을 달리한 곳도 다섯 군데나 되며, 단어나 구절이 많은 경우가 네 군데, 적은 곳이 여덟 곳이다. 언더우드가 그 전의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을 참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어의 선택에 있어서 유사함을 보이는 경우도 “처음 친이 즈세히 상고 반렬 제스 압헤 경계 나히 못춤 반렬 직분 압헤” 등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어순이 같은 경우도 있다(4-8절). 이는 이전 번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이전 번역인 로스역의 공적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6.3. 언더우드의 두 누가복음 비교

- 누가복음 1장 1절  
 언더우드역(1895) <sup>二</sup>더오빌노대인이여대개만흔사람이근본도를전호는이가
- 언더우드역(1898) 一대개 여러히 손을 들어 우리 중에 족히 증거한 일노 글을 베프러 지은 거시
- 
- 누가복음 1장 2절  
 언더우드역(1895) <sup>二</sup>처음부터 친히 보고 우리의게준대로우리가깊히밧을일을글에 기록한거시니
- 언더우드역(1898) 二처음부터 친히 보고 도를 섬기는 이들이 우리의게 준대로 기록한 거시니
- 
- 누가복음 1장 3절  
 언더우드역(1895) <sup>三</sup>나도즈세히상고호고츠레로써서
- 언더우드역(1898) 三나도 즈세히 근원을 미루어 슬핍으로 츠레로 써서 데오빌노 각하에 보내는 거시 맞당흔 줄노 아니
- 
- 누가복음 1장 4절  
 언더우드역(1895) <sup>四</sup>네게보내는거손너로호여곰비흔거시확실흔거술알게흠이로라○
- 언더우드역(1898) 四이는 너로 호여곰 비흔 바의 확실 흠을 알게 흠이나라○
- 
- 누가복음 1장 5절  
 언더우드역(1895) <sup>五</sup>유다왕헤롯시절에아비아반렬의제스호나히잇스니일흠이사가 리아 | 라그안히는아론의즈손이니엘니사벳이라
- 언더우드역(1898) 五유대왕 헤롯의 시절에 아비아 반렬의 제스 호나히 잇스니 일 흠이 사가르아 | 라 그 안히는 아론의 즈손이니 일흠은 엘니사벳 이라

누가복음	1장 6절
언더우드역(1895)	<sup>六</sup> 두사람이하느님압혜의인이라주의경계와례의를조차형하야말 이업고
언더우드역(1898)	六이 두 사람이 하느님 압희 의인이라 주의 계명과 례의를 조차 형하야 흠이 업는지라
누가복음	1장 7절
언더우드역(1895)	<sup>七</sup> 엘니사벳이슈티를못하야무즈하고두사람의나히또만흔지라
언더우드역(1898)	七또 무즈 흠은 <u>엘니사벳</u> 이 슈티를 못 흠이오 두 사람의 나히 또 흔 만흐니라○
누가복음	1장 8절
언더우드역(1895)	<sup>八</sup> 뭇춤사가리아가그번의반렬대로제스의직분을하느님압혜형홀 시
언더우드역(1898)	八뭇춤 사가리아가 그 반렬의 차례대로 제스의 직분을 하느님 압희 형홀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898년 『누가복음』은 1895년 『누가복음』과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언더우드의 1895년 『누가복음』과 1898년 『누가복음』의 본문 차이를 대략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 6.3.1. 철자법의 변화

- “압혜”를 “압희”로(6절)
- “례의를”을 “례의를”로(6절)
- “뭇춤”을 “뭇춤”으로(8절)

### 6.3.2. 음역의 변화

- “더오빌노”(1절)를 “데오빌노”(3절)로
- “유다”를 “유대”로(5절)
- “사가리아”를 “사가르아”로(8절)

### 6.3.3. 대응어 교체

- “만흔사람이”를 “여러히”로(1절)

“전혀논이가”(1절)를 “섬기는 이들이”(2절)  
 “글에기록한거시니”(2절)를 “글을 베프러 지은거시”(1절)로  
 “상고하고”를 “슬핍으로”로(3절)  
 “네게”(4절)를 “데오빌노 각하에”(3절)로  
 “경계와”를 “계명과”로(6절)

#### 6.3.4. 어순의 변화

“데오빌노대인이여”(1절)를 “데오빌노 각하에”(3절)로  
 “도톨전혀논이가”(1절)를 “도톨 섬기는 이들이”(2절)로  
 “우리가갑히밋을일을”(2절)을 “우리중에 족히 증거한 일노”(1절)로  
 “글에기록한거시니”(2절)를 “글을 베프러 지은거시”(1절)로  
 “네게보내는 거슨”(4절)을 “데오빌노 각하에 보내는 거시”(3절)로  
 “엘니사벳이슈티를못하야무즈하고”(7절)를 “또 무즈 흡은 엘니사벳이 슈티를  
 못 흡이오”(7절)로

#### 6.3.5. 번역을 고친 것

“우리가갑히밋을일을”(2절)을 “우리중에 족히 증거한 일노”(1절)로

#### 6.3.6. 번역어의 첨가(밑줄 부분)

“만흔사롬이”를 “여러히 손을 들어”(1절)로  
 “상고하고”를 “근원을 미루어 슬핍으로”(3절)로  
 “엘니사벳이라”를 “일흡은 엘니사벳이라”(5절)로  
 “반렬대로”를 “반렬의 츠레대로”(8절)로

#### 6.3.7. 번역어의 삭제(밑줄 부분)

“근본도톨”(1절)을 “도톨”(2절)로  
 “그번의반렬대로”를 “그 반렬의”로(8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898년 『누가복음』은 1895년 『누가복음』의 번역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철자법이나 음역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어순에 있어서는 원문의 어순을 따라서 다시 조절한다. 그리고 “우리가갑히밋을일을”을 “우리중에 족히 증거한 일노”로 변경하기도 한다. 또 “글에기록한거시니”를 “글을 베프러 지은거시”로 “상고하고”를 “슬핍으로”로, 한자어를 순 한국어로 옮기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1895년의 『누가복음』에서 그전의 우리말

역본들에서 우리의 고유어로 번역했던 부분을 한자어로 옮긴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1895년 『누가복음』에서는 “긔게 흠을”을 “확실히 거슬”로(4절), “째를”을 “시절에”(5절)로, “올혼자 | 라”를 “의인이라”(6절)로, 그전의 로스역과 아펜젤러역에서 우리의 고유어로 옮겼던 부분을 한자어로 옮겼다. 그러나 1898년의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1895년 『누가복음』에서 한자어로 번역한 부분을 우리의 고유어로 다시 번역하고 있다. 좀더 우리말다운 표현을 찾고자 하는 언더우드의 노력을 볼 수 있다.

#### 6.4. 언더우드의 『누가복음』(1895)과 RV(1881) KJV(1611) 대조

앞 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언더우드는 성서의 번역 출판 보급에 열심이어서, 아주 빠른 시기인 1887년 2월 7일에 상임성서위원회를 조직, 1893년 5월 16일에 스크랜튼의 집에서 상임성서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번역의 대본으로 옥스퍼드판 그리스어 성경(1881)을 1차 대본으로 하고, Textus Receptus (TR)에 따라 일부수정을 허용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모든 선교사들이 모두 영어권 출신이었으므로, 실제로 번역에 많이 이용된 것은 1881년판 *Revised Version (RV)*과 1611년판 *King James Version (KJV)*이었을 것이다(대. 36, 37). 그러나 언더우드 자신이 번역 대본을 명확히 밝힌 기록이 없으므로, 먼저 두 영어 역본과 대조하면서 『누가복음』 1895년판의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언더우드 1895년 『누가복음』의 22장 56절부터 62절까지의 본문을, *KJV* (1611), *RV* (1881)와 비교해 보겠다.

	<i>KJV</i> (1611)	『누가복음』 (1895)	<i>RV</i> (1881)
56	But a certain maid beheld him as he sat by the fire, and earnestly looked upon him, and said, This man was also with him.	흔계집종이베드로   불을향흐야안진거슬보고 다시쭈쭈이보아굴으디 이사람이예수와흔가지로든닌사람이라흐니	And a certain maid seeing him as he sat in the light of the fire, and looking stedfastly upon him, said, This man also was with him.
57	And he denied him, saying, Woman, I know him not.	베드로   아니라흐야 굴으디 녀인아나   알지못흐노라	But he denied him, saying, Woman, I know him not.

58	And after a little while another saw him, and said, Thou art also of them. And Peter said, Man, I am not	또조곰잇다가다른사람 이보고골으디 너도그당이니라 베드뢰골으디 이사람아나논아니로라	And after a little while another saw him, and said, Thou also art one of them. But Peter said, Man, I am not
59	And about the space of one hour after another confidently affirmed, saying, Of a truth this <i>fellow</i> also was with him: for he is a Galilaean.	흔시즘잇다가 다시흔사람이잇서덩령 이말흐야골으디 이사람이실노흔가지로 든니느니 대개갈닐니아사람이라 흔대	And after the space of about one hour another confidently affirmed, saying, Of a truth this man also was with him: for he is a Galilaean.
60	And Peter said, Man, I know not what thou sayest. And immediately, while he yet spake, the cock crew.	베드로   골으디 이사람아네말을내알지 못흐노라흐더니 곱말흐재에 둑이우논지라	And Peter said, Man, I know not what thou sayest. And immediately, while he yet spake, the cock crew.
61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he had said unto him, Before the cock crew, thou shalt deny me thrice.	주   베드로를도라보시 니 베드로   드더여 주   말슴흐시기를 둑울기전나를세번비반 흐리라 흐신말슴을싱각흐고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he had said unto him, Before the cock crew, thou shalt deny me thrice.
62	And Peter went out, and wept bitterly.	드더어나아가통곡흐더 라	And Peter went out, and wept bitterly.

5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어 Πέτρος를 음역한 것이다. 그전의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에서 영어 “Peter”를 “피들”로 음역한 것에 비해서 언더우드는 직접 그리스어에서 음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 역본들에서 “him”이라고 한 것을 “베드로”라고 실명사로 옮긴 것은 로스역과 아펜젤러역과 마찬가지로이다.

“불을향하야”는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에서 “불빛출향하야”라고 번역한 것과는 다르다. “불을향하야”는 RV의 “in the light of the fire”나 KJV의 “by the fire”보다 그리스어 πρὸς τὸ φῶς를 더 잘 반영한다. “다시” 또한 그전의 우리말 역본들에는 없는 표현으로 그리스어 Καὶ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와 혼가지로 드닌사름이라”는 언더우드 번역은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이 “예수와 함께한 자라”라고 한 것과는 달리, “드닌”이 첨가된 번역이다. 그리스어 σὺν αὐτῷ ἦν이나 영어역본의 “was with him”이나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언더우드가 뜻을 번역한 것이다.

57절에서 “아니라하야”는 그리스어 ἠρνήσατο를 영어역본에서 “denied”로 옮긴 것과, 혹은 초기 로스역의 “배반하야”나 아펜젤러역의 “모른체하야”와는 다른 번역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화체의 특징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58절에서 “너도그당이니라”는 그리스어 Καὶ σὺ ἐξ αὐτῶν εἶ나 이를 옮긴 영어역본의 “Thou art also of them”을 문자 그대로 “너도 그들 중 하나라”라고 옮기지 않았다. 로스역과 아펜젤러역의 “그 무리라”라고 한 것과 같은 경향을 반영한다. 여기서만 고유어 “무리”를 한자어 “당”(黨)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인 조력자의 협력으로 『중국어 위원회 역본』(1853)에서 “爾亦其黨이라고 번역한 것을 참조한 흔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람아”는 언더우드 자신만의 독특한 번역이다. 영어의 “Man”(그리스어로는 ἄνθρωπε) 혹은 그전의 우리말 역본이 “사람아”라고 한 것에 비해 “이”라는 지시어를 첨가하여 자연스러운 부름말로 옮긴 것은 지금 생각해도 탄복할 만하다.

59절에서 “혼시즘잇다가”는 “편시에”(잠깐)라고 옮긴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과는 다른 번역으로, 오히려 RV의 “after the space of about one hour”를 따른 번역으로 보인다. “덩령이”는 “틀림없이”라는 의미의 “정녕(丁寧)이”로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에서 “힘써”라고 옮긴 것과는 달리 그리스어 δὺσχυρίζετο를 영어역본에서 “confidently”라고 옮긴 번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사람이실노 혼가지로드닌니”는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의 “이사람이실노 흠피흔거시”라는 번역과 다르다. 56절과 마찬가지로 “다니다”를 첨가한 뜻 번역이다. “갈닐니아”는 그전의 역본에서 “가니니”라고 한 것과는 다른 음역으로, 그리스어 Γαλιλαίος(갈릴리 사람)에 가깝게 음역하였다.

61절과 62절의 “드더여”는 그전의 역본들이 담아내지 못한 그리스어 Καὶ와 영어역본의 and가 지닌 뜻을 언더우드가 자신의 역본에서 강조한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언더우드의 1895년 『누가복음』은 그전의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의 번역과는 다른 새로운 번역이다. 음역에 있어서는 그리스어를 따라 새로 음역한 부분이 있고, 다른 역본들과는 다르게 “다시쭈쭈이보아”와 같이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예수와 혼가지로 드닌사람이라”처럼 뜻 번역을 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이라”와 같이 중국어 역본을 참조한 흔적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인 조력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옮기기 위하여 “이”를 첨가시켜 “이사람아”라고 옮기기도 한다.

다음은 언더우드 1895년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살펴 보면서 번역 특징과 본문비평적 특징을 보도록 한다. *KJV*(1611)과 *RV*(1881)이 본문비평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 언더우드 1895년 『누가복음』은 어느 쪽을 따랐는지 비교해 본다.

	<i>KJV</i> (1611)	『누가복음』(1895)	<i>RV</i> (1881)
2	And he said unto them, When ye pray, say,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in earth.	예수   닐너굴으샤디 너희기도훈째에이러케 하라 우리아바지신자여 네일흠이거룩하시며 네나라히림하시며	And he said unto them, When ye pray, say,  Father,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3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우리게일용할 량식을주시고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4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 one that is indebted to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죄를면허여주심을 우리가우리게득죄한자 를면허야줍곳치하시고 우리를시험에빠지지말 게허옵소서 또한우리를홍악에구하 소서하라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ourselves also forgive every one that is indebted to us. And bring us not into temptation.

2절의 “우리아바지신자여”는 로스역에서 “아바니”(1882), 혹은 “아반이”(1886, 1887)라고 옮긴 것이나 아펜젤러역에서 “우리하늘에게신아버지야”(1890, 1893)라고 번역한 것과는 다르다. 아펜젤러의 번역은 수용본문(受用本文)과 이를 옮긴 *KJV*를 따른 것이고, 로스역은 수용본문을 피하여 비평적으로 재구성한 본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언더우드 1895년판은 그리스어 Πάτερ ἡμῶν을 번역한다. 이러한 읽기는 8세기의 “레기우스사본”(Codex Regius)

과 소수의 사본들만이 지지한다. 그러므로 언더우드가 본문비평적 판단을 하였다기보다는 *RV*를 따라 “아버지”라고 옮긴 후에 “우리”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바지신자여”라는 호격은 “아버지야”라고 옮긴 아펜젤러역과 달리 존칭을 취하려 했던 것 같다. “네일흠”이나 “네나라”에서 “네”는 로스역이 실명사 “아바니”로 옮긴 것과는 달리 아펜젤러역처럼 2인칭 평교형을 사용한다. 언더우드가 자신의 문법책에서 이러한 대명사를 낮춤(low) 또는 경시하는(disrespectful) 말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서<sup>25)</sup>, 한국어 대명사의 높임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말을 선택한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2절 하반절은 *KJV*의 “Thy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in earth”를 따르지 않고 *RV*와 같이 비평적으로 재구성한 본문을 따랐다. 이것은 로스역과 같지만, 아펜젤러역이 “네뜻시하늘에서일우시듯싸회셔도일우옵시며”라고 한 것과는 다르다.

3절에서 “우리게일용홀량식을주시고”는 로스역의 “쓰넌비냥식을나마당주시고”과 아펜젤러역의 “오늘날우리쓰는 량식을주옵시며”와 의미상 같다. 다만 “일용(日用)”이라는 한자어가 사용되었는데, ‘중국어 위원회 역본’에도 “일용”이라는 낱말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sup>26)</sup>, 당시의 한국 일상어의 한자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득죄, 시험, 흉악” 등의 한자어 낱말이 중국어 위원회 역본 성경에서는 “罪, 試, 惡” 등으로만 번역하고 있어서, 이들이 모두 당시의 한국 한자어의 반영일 것으로 판단된다.

4절의 “죄를면혀”나 “득죄혼자” 또한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에 있는 한자어로, 중국어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흔우리를흉악에구혀쇼셔하라”는 본문 비평이 반영된 *RV*와 로스역에는 없는 부분이다. “수용본문”의 ἀλλὰ ῥύσαι ἡμᾶς ἀπὸ τοῦ πονηροῦ를 따른 *KJV*에는 “but deliver us from evil”로, 아펜젤러역에는 “다만우리를악흔더셔나오게혀옵쇼셔이러케혀여라”라고 되어 있다. 4절의 번역은 “수용본문”을 따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1895년 『누가복음』은 대체로 비평적으로 재구성한 그리스어 본문을 따른 *RV*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어의 “수용본문”을 따라 긴 읽기로 번역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보다는 한자어로 대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 “고상한 문체와 상스러운 문체” “쉬운 문체이면서도 동시에 학문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정숙하고도 깔끔한 문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 언더우드의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어느 정도의 한국 한자어의 사용을 성경 번역에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

25)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Language Spoken Language*, 40.

26) “所需之糧 日日賜我”

는 부분이다.

## 7. 결론

한국의 초기 선교사이자 번역자였던 언더우드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더우드의 한국어 문법책은 한국어 회화를 배우는 학생들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지만,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한국어 문법을 기술하고 있었다.

언더우드 1895년 판 『누가복음』은 로스역과 아펜젤러역을 참고한 흔적이 발견되지만, 주로 『영어 개역 신약』을 바탕으로 새롭게 우리말로 옮긴 역본으로 보인다. 적절치 않은 존대법을 사용한 곳도 보이고, 간간히 오자도 발견되지만, 로스역이나 아펜젤러역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적지 않게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어순의 변화에 있어서나 첨가나 삭제에 있어서, 그 당시의 다른 우리말 역본들보다 자유롭게 번역을 하였다. “더오빌노대인이여”라는 부름말을 편지의 맨 앞으로 보내서 한국의 편지 형식을 따른 것도 이것을 읽을 한국인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고, “근본도”와 같은 번역도 본문의 내용을 한국인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더우드가 당시 가장 최첨단의 본문비평판인 웨스트콧호르트 그리스어 신약에 기대어 1895년 『누가복음』과 1898년 『누가복음』을 번역하였다. 이것은 『구역』과 『개역』으로 이어지는 한국어 신약성서가 본문비평을 반영하고 있는 본문으로 번역되도록 하는 좋은 전통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말씀의 개념을 완전히 한국말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언더우드의 말은, 한국말을 몰라서 또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참된 의미에서 ‘원어의 의미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찾아 내어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한 번역자의 고백일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번역 처음부터 함께한 한국인 조력자들의 역할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이미 성서를 읽어서 선이해가 있는 독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서 개념어들은 언더우드를 비롯한 초기 성서 번역자들과 한국인 조력자들의 수고의 결과였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성경 본문의 뜻을 한국어로 완전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의 한국인 성경 번역자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것은 또 앞으로도 한국어 성경 번역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주요어

한국어 개관, 철자법의 차이, 음역의 차이, 번역어 선택의 차이, 어순의 차이, 번역 대조

an Introduction to Korean spoken language, orthographic differences, differences of transliterations, differences of term selections, differences of word order, comparison of translation

\* 참고문헌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로스, J. & 매킨타이어, J., 심양: 문광서원, 1882.  
 『예수성교누가복음데자헝적』, 로스, J. & 매킨타이어, J., 심양: 문광서원, 1883.  
 『예수성교전서』, 로스, J. & 매킨타이어, J., 심양: 문광서원, 1887.  
 『마가의전흔복음서언히』, 언더우드, H. G. & 아펜젤러, H. G., 발행지미상: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1887.  
 『누가복음전』, 아펜젤러, H. G., 서울: 미이미교회인쇄소, 1890.  
 『누가복음전』, 아펜젤러, H. G., 서울: 미이미교회인쇄소, 1893.  
 『누가복음』, 언더우드, H. G., 발행지미상, 1895.  
 『누가복음』, 언더우드, H. G., 발행지미상, 1898.  
 『신약전서』, 상임성서위원회, 서울: 대영성서공회, 1900.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Westcott, Brooke Foss Hort, Fenton John Anthony, eds., Chicago: A.T.L.A., 1881.  
*H KAINH ΔΙΑΘΗΚΗ.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sed Version*, Palmer, Edwin, ed., Oxford: Clarendon Press, 1881.  
*Novum Testamentum Graece*, B. Aland, Kurt Aland, J. Karavidopoulos, C. Martini and B. Metzger, 4th ed.,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y, 1993.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 Translated out of the Original Tongues: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Oxford: Oxford University, 1887.  
*The Greek New Testament*, E. Nestle and K. Aland, 27th ed., Stuttgart: Bibelgesellschaft Deutsche/United Bible Societies, 1994.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ranslated out of the*

*Greek: Being the Version Set Forth A.D. 1611, Compared with the Most Ancient Authorities and Revised, A.D. 1881*, Ellicott, C. J. et 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 새문안교회역사편찬위원회편, 『새문안교회 문헌사료집 제1집』, 서울: 새문안교회, 1987.
- 서정민 편역, 『韓國과 언더우드: (1905-1941)의 언더우드 家』,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4.
-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서울: 쿤란출판사, 2002.
- 언더우드, L. H., 『상투의 나라』, 신복룡, 최수근 역, 서울: 집문당, 1999.
- 언더우드, L. H., 『언더우드-한국에 온 첫 선교사』, 이만열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0/1999.
- 이만열,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Liddell, Henry George,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New York: At the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Louw, Johannes P. and Nida, Eugen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Metzger, Bruce M.,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Oxford: United Bible Societies, 1971.
- Ross, John,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Shanghai & Hongkong: KELLY & WALSH, 1882.
- Underwood, H. G.,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한국기독교사 연구회 편,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3.
- Underwood, H. G.,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3책, 서울: 탑출판사, 1977; 원출판년 1890.

<Abstract>

## Study of Underwood's Early Korean Bible Translations

- Focusing o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1895) -

Dr. Young-Jin Min, Moo-Yong Jeon & Ji-Youn Cho  
(Korean Bible Society)

Underwood, who was a Bible translator and one of the early missionaries to Korea, appears to have reflected much on how to effectively deliver the message of the gospel to the Korean people.

Although traces of reference to Ross' and Appenzeller's translations are found in Underwood's 1895 ed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t appears to be a new translation into Korean based mainly on the Revised Version. There are occurrences of inappropriate use of honorifics and occasional incorrect spellings in this translation, but it has correctly transl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texts that were misunderstood in the Ross and Appenzeller translations. In terms of changes in word order or addition/deletion of words, Underwood's translation has exercised more freedom than any other Korean translation available at the time. The choices he made then are reflected in his 1895 edition of the Gospel of Luke.

Underwood's transla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n 1895 and in 1898 was made on the basis of Westcott-Hort's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which was the most up-to-date critical edition available at the time. Influences from Chinese translations can be found because even though missionaries used English translations as their texts and referred to Greek translations, they had to rely on Chinese translations in order to appropriately transfer new conceptual words that we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pure Korean. Various conceptual words of the Bible - including the term 'God' - that are now naturally accepted by readers who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Bible, are seeds sown by the efforts of early Bible translators including Underwood, and their helpers. This is also well illustrated in the translation principles and policy of 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 chaired by Underwood.